

‘여권 추천’ 전직 KBS 이사 “자식까지 거론하며 명예훼손”

이석래 “KBS 정상화 못해 박민 사장 선임 반대” 국회 과방위, 서기석 이사장 동행명령장 발부 민주 정동영 의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본부부장, 제작자율성 파괴 실상 알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박민 KBS 사장 선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석래 전 KBS 이사에 대해 “소위 ‘여권 추천’ 이사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이석래 이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자녀에 대한 공격, 마타도어가 이뤄져 고발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석래 이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는 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민 KBS 사장 선임에 반대한 여권 추천 이석래 전 이사에 대해 “지나해 박민 사장 선출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석래 전 이사는 “제 결정의 마지막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KBS에서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1년 전이 임기를 놓고 외부에서 와서 정상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자체적으로 반대했다” 밝혔다.

사실상 이석래 이사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등에서 “현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던 시기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뒷조사에 협박까지 하며 충성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것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박민 사

를 수 있는 제작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부분부장은 “박민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프로그램이 시시각각 국에서만 네 개가 없어졌다”며, “더러 이브는 (사장이) 취임도 하시기 전에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역사저널 그날은 다시 만든다는 말만 하셔서 제작진 업무분장표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예진 부분부장은 “KBS 사측은 지금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빼앗고, 추적60분을 보도본부로 난데없이 이관시키는 등 시사영역을 PD로부터 빼앗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민 사장의 답변에 전반적으로 반박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박민 사장에 “사장(연일) 지원서와 경영계획서를 내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써 주셨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박민 사장은 이에 대해 “자료요청 등을 받았고, 직원들이 전면적으로 써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전면적으로 써준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써준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박민 사장은 “보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고치고 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결국 보고를 받아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1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15강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내 대학들, 미래 교육 변화 대비해야”

전북 백년포럼 제15강…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인재 양성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15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들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과 그 실천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과에 재직 중인 배상훈 교수는 전북이 직면한 지역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교육과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교수는 “도내 대학들이 미래 교육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이 맞이할 7가지 미래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에 진행된 전북 인재 양성 정책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방안을 제시

했다.

배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적자원개발 박사,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부이사관과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도내 대학과 협력해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이 교육과 인재 양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산림청·지자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민주 윤준병 의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의 97%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및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의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누적) 현황은 총 2만 8,988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산사태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21년 4.9억원(2,204개소), 2022년 28.35억원(6,125개소), 2023년 28.35억원(5,283개소), 2024년 47.34억원(1만 2,027개소, 조사중) 등 총 108억

9,400만원(2만 5,639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산사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 2023년 2,410건, 2024년 현재까지 1,030건 등 총 4,908건이었지만, 정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6.9%)에 불과했고, 나머지 93.1%에 해당하는 4,570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총 2,410건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고작 73건으로 단 3%에 불과했고, 전체 97%에 달하는 2,337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이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노다지’ 인가?”

민주 박희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0년 175개

로 인해 발생한 총 복구비는 1,428억 2,200만원으로 21년(149억 9,900만원) 대비 852% 증가했다.

감사원 역시 올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매년 기초·실태 조사를 거쳐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기초조사 우선 지역 선정 기준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의 관리업무 소홀을 지적받았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에 있는 위험구역임에도 대피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위험 구역 내 시설을 대피 시설로 지정해 놓는 등 대피 체계가 허술한 문제 등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을=김대환 기자

‘정치,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칩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 전북정치학교’ 기본과정 운영 한국여성의정 후원… 도내 여성 40여명 대상으로 진행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14~17일 4일간 정치에 관심 있는 전북지역 여성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의정이 후원하는 ‘2024 전북정치학교’ 기본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은 여아를 초월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각 지역에 정치학교를 개설해 지역의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23년까지 ‘호남정치학교’라는 이름으로 전북, 광주, 전남지역을 통합해 운영했으나 올해 ‘전북정치학교’로 변경되면서 전북지역의 여성들이 정치에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북정치학교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여성-남녀동수 △지방자치와 여성 등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본 소양 과목과 △여성 정치인과의 만남 △디베이트 △나의 각오 발표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전·현직 여성 정치인

들이 멘토 역할을 하며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여성들이 정치적 담론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을 갖추도록 도움을 줬다.

올해는 충남 부여군과 보령시를 방문하는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도 추가해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정희 원장은 “정치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치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큰지,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될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의회 의원들 조례안 발의 잇따라

이명연 도의원,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조례안’
이병철 도의원,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17일 본회의 심사 눈앞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일상 생활에서부터 감축하기 위해 당초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이만호 기자

이명연 도의원

이병철 도의원

식생활 교육 홍보를 위해 △푸드 마일리지제를 줄인 로컬 식재료 사용하기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하기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발의했고,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 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의견 청취 등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저탄소

강태창 전북자치도의원 군장대로부터 감사패 발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지난 14일 군장대학교(총장 이계철)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계철 총장은 “평소 강태창 의원은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환경 개선 특히 학교법인 공동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며, “이에 화원실업 74주년 및 군장대학교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지역 발전, 특히 지역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받아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강태창 의원은 도의회에 임성한 이후 통일교육 활성화·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